

2025년 경기예술지원 2차 시각예술 분야 심의평

2025. 5. 21.

심의위원장

김 주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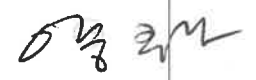
심의위원

김 선 형



심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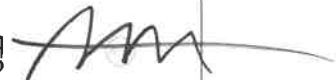
양 준 성



심의위원

김 현 정

생애첫시각AS24



2025 경기예술지원 2차

【 생애 첫 지원-시각예술 분야 】 심의평

2025년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생애 첫 지원-시각예술 분야> 지원 심의는 총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5명의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198명이 지원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신작 준비를 위한 작업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참석하신 네 분 심의위원의 의견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생애 첫 지원 공모에서는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작품들이 있었으나 작품 제작에 대한 의지만 보여주는 모습이 아쉬웠다. 몇몇 지원자는 첫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제의식과 소재적 실험, 탐구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배점에 있어서도 예술적 심미성이나, 조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감각과 관계, 그리고 동시대의 예술가적 사유를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 2025년 생애 첫 지원 시각예술분야(A트랙·B트랙) 공모에서는 다양한 매체와 접근법을 시도하는 신진 예술가들이 참여하였다. 다만 다수의 계획서에서 개인적인 경험담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주제적 참신성이 결여된 진부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시각적 언어나 창작적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존의 서사적 표현에 머무는 한계가 뚜렷했다. 반면, 우수 지원자들은 동시대 사회적, 문화적 이슈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거나 관객의 흥미와 사고를 유발하는 주제의 식을 제시하며 차별성을 보였다. 일부 계획서에서는 예산 계획과 실행 전략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으나, 그 외 상당수 지원서에서는 세부 계획의 미비, 목표와 기대 효과 간 연결성 부족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단순한 자기 서사적 접근을 넘어선 주제적 독창성과 새로운 창작 가능성을 제시하는 예술가군을 선별하였으며, 이들이 향후 시각예술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지원서를 검토하며 평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특히 A트랙(공간지정지원)의 경우, B트랙(자율개최지원)보다 평가가 더 어려웠으며, A트랙 지원서들은 포트폴리오, 전시 목적, 세부 계획 등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이었기에, 작품의 독창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B트랙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예술성과 독창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으나, 더 나아가 전시 공간 구성 및 계획의 구체성, 즉 실질적인 준비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가 주요 선별 기준이 되었다. 지원서를 통해 판단했을 때, 일부 지원자들은 구체적인 작업 구상 등 신작 작업 및 전시 준비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으며, 이는 연내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반면, 리서치나 테스트를 시작하겠다는 계획 중심의 지원서들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최종적으로 선발된 지원서들은 예산안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게 작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비교적 다양한 매체 방식으로 작업하는 시각 예술가들의 지원이 이루어진 듯 해 고무적이었다. 특히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공간 지원자의 경우, 신진 작가 옴니버스전의 의미에 대해 물리적인 연령대를 초월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갤러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공공 미술관의 공간에서 전시 기회가 없었던 경우 작업에 대한 색다른 피드백을 받거나, 단체전이 아니라면 기회가 비교적 흔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생애 첫 지원이라는 기회를 통해 다양한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2025. 5. 21.

심의위원장	김 주 옥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미술평론가
심의위원	김 선 형	탈영역우정국 대표
심의위원	양 준 성	작가
심의위원	김 현 정	경기도미술관 학예사

2025 경기예술지원 2차 【 원로예술활동 지원-시각예술 분야 】 심의평

2025년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원로예술활동 지원-시각예술 분야> 지원 심의는 총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6명의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46명이 지원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원로작가의 신작 작업 또는 전시개최를 위한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참석하신 세 분 심의위원의 의견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원로예술활동 지원자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우수한 경력을 지닌 작가들과 다소 소외되었지만 꾸준한 창작 활동을 지속해 온 작가들이 지원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평면 작업 개인전이 다수를 이루고 소수의 입체, 설치, 서예 등으로 지속적인 예술 활동의 결과로써의 다양성이 다소 한정적이었음이 아쉬운 점이다. 선정에 있어서는 연륜과 경력보다는 구체적인 작품 혹은 전시 계획이 서술되어 실현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본 공모사업이 단순한 작품 제작과 발표의 기회뿐만 아니라 원로 예술가에게 활발한 사회적 참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하길 기대한다.

○ 이번 심사는 원로 시각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자 역량’, ‘목표 부합성 및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세 항목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진행되었다. 신청자들은 회화, 조각, 공예, 서예, 설치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해 온 원로 예술인들로, 대부분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최근까지도 활발한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심사에서는 경력의 양적 규모뿐만 아니라 최근 활동의 지속성, 포트폴리오의 완성도,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예술적 성취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파급효과와 향후 지속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상위권은 최근까지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왔고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협업, 교육적 기여,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프로젝트 기획 능력 보유한 점이 좋았고 중상위권 또한 우수한 활동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반면 일부 지원자는 최근 활동이 미비하거나 계획서의 세부성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원서류의 충실도와 포트폴리오의 수준 차이가 점수 분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번 심사는 원로 예술인의 예술적 성취를 존중하면서도 현재 활동성과 사업계획의 실질적 가능성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원로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과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원로예술활동 지원의 경우, 지원자분들의 역량이 대체로 높아 평가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원서 작성 과정에서 생략 없이 충실히 작성된 점을 기본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았으며, 작품의 실질적인 창작 가능성과 더불어 신작에 대한 도전과 실험이 담긴 기획안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2025. 5. 21.

심의위원장 김 주 옥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미술평론가
심의위원 김 선 형 탈영역우정국 대표
심의위원 양 준 성 작가